

'갑'이 된 배달대행업체...자영업자들 속탄다

새해 배달로 인상에 추가 할증요금까지...눈은 날 무더기 배달 중단도 고객에 부담 줄 수 없어 울며 겨자먹기 수용...코로나 불황 속 한숨만 중개로 배민 7%·요기요 11% 비해 2%인 광주시 공공앱 이용은 저조

#. 광주시 북구 용봉동에서 곰탕집을 운영하는 A씨는 배달 앱으로 7500원짜리 곰탕 한 그릇을 판매하면 고작 2000원 가량을 손에 쥔다. 최저시급과 채소 값 등 기본적인 물가가 상승했는데 곰탕 가격은 유지하다 보니 이익은 적어졌다. 특히 배달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이 크다. 배달 플랫폼 중개료와 배달대행업체에 지불하는 기본 배달요금에다, 야간 할증, 배달지까지 일정 거리를 넘어하면 불는 할증요금까지 포함하면 남는 게 없다. 송씨는 "배달비가 너무 올라 걱정이 많다. 그렇다고 배달이 포장 판매나 방문 판매보다 훨씬 많이 안할 수도

없고 배달비 아끼려고 내가 배달할 수도 없어 답답하다"고 푸념했다.

코로나19 여파로 힘겨운 날들을 버텨내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배달대행료 인상으로 깊어지는 모양새다.

가뜩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포장·방문 판매보다 배달 주문이 급증하면서 배달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새해 들어 배달 요금이 17%까지 올라서다. 그렇다고 배달을 포기할 수도, 자체 배달을 고집할 수도 없어 속앓이만 하고 있다.

3일 광주·전남 일부지역 자영업자와 배달업체 등에 따르면 광주지역 배달업체들은 이달 초부터 배달 요금을 인상했다.

배달대행 업체들은 상인들에게 배달 1건당 기존 3000원 수준이었던 배달요금을 3500원(17%)으로 올린다고 공지했다.

기본요금 뿐 아니다. 기본 배달거리인 1.2 km를 넘어서면 100m 당 300원의 추가요금을 부과했고 비나 눈이 오는 날, 야간에는 300원 가량의 할증 요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같은 배달대행업체 공지를 받은 자영업자들은 속이 터진다. 코로나 여파로 사실상 배달 주문이 대세인 음식점이 많아진 상황에서 자체 배달 인력이 없는 소규모 영세업체들은 거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본 배달 수수료에 거리당 추가 금액, 야간 할증까지 포함되면 배달 1건 당 1500원이 오르게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루에 100건의 배달 주문을

받을 경우 15만원 가량을 배달비로 쟁겨줘야 하는 셈이다. 최근 배달 기사 수요가 늘면서 최소 2500만 원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자체 배달 기사 고용도 현실적이지 못한 실정이다. 온 가족이 배달에 나설 수 없다면 배달비 인상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형편이다.

최근에는 배달 주문이 절박하다보니 배달 기사 운행 중단으로 인한 손해를 입기도 한다. 지난달 말 나주지역에서는 눈이 많이 내려 배달대행업체가 안전문제를 이유로 배달을 중단하면서 일대 자영업자들은 걸려오는 손님들의 주문 전화를 포기해야 했다.

광주시 서구 화정동에서 배달음식 전문점을 운영하는 A씨는 "주문이 많지만 배달 인력이 없다보니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배달 인상을 감내해왔지만 음식값을 올리지도 못하는데 마냥 떠안아야 해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자영업자들이 버텨내지 못하고 소비자들에게 넘길 우려도 나오고 있다.

광주시가 이같은 문제점 등을 완화시키기 위해 운영중인 공공배달앱 '위메프 오'는 지난해 4월부터 운영중이지만 소비자들에게 선택받지 못하고 있는데다, 배달 요금에는 별 차이가 없어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위메프 오의 중개료는 2%에 불과, 배달의 민족(7%), 요기요(11%) 보다 낮지만 배달 요금의 경우에는 차이가 없다.

배달업계에서는 배달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 배달대행 업체 광주지사 관계자는 "올해부터 배달 기사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과거와 달리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생겼다"면서 "게다가 이제 수입이 드러나면서 세금도 더 내야 한다. 또 광주의 경우 배달 요금이 수도권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사망사고 내고...운전 안했다던 고교생 결국

CCTV 분석 시간대별 좌석 배치 파악...법정서 거짓말 들통

지난 2020년 9월13일 밤 11시40분께 목포시 상동 모 초등학교 앞길에서 쏘나타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 역주행하다 마주오던 K7 승용차가 정면 충돌하는 사고가 났다. 빗길에 도로가 젖은 상태임에도, 제한속도(60km)를 훨씬 넘는 123km 속도로 달리다 빗길 사고였다. 면허가 없는 10대 고교생이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으로 차량을 렌트해 몰고 가다 고교생 2명, 상대방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1명 등 3명이 숨지는 사고로 이어졌다.

그런데 사고 운전자를 밝히기 쉽지 않았다. 경찰이 가해 차량으로 지목한 쏘나타 차량 운전석에는 사고 직후 아무도 없었다. 차량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됐다. 블랙박스에도 누가 운전했는지를 확인할 영상은 없었다. 경찰이 인근 CCTV를 통해 운전자로 특정했던 A(19)군도 사고 직후 조사에서 "차량 뒷좌석에 탑승했다"고 발뺌했다. 운전은 하긴 했지만 사고 직전에 운전석을 바꿨다는 것이다. A군측은 재판 과정에서 운전석 안전벨트 착용 표시등이 켜져 있었고 사고 직후 운전석 시트가 훼손돼 운전자가 운전석을 빠져나갈 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점, A군은 당시 의식이 없었던 점 등을 들어 당시 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고 차량의 이동로에 위치

한 CCTV를 분석, 사고 당시까지의 A군과 친구 4명의 시간대별 좌석 배치를 파악해 A군 주장이 맞지 않다고 봤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차량 운전석에서 A군 DNA를 검출한 반면, A군이 운전자로 지목한 B군의 DNA를 찾지 못한 점, A군을 운전자로 지목한 B군 진술의 신빙성, 사고 직전까지 확보한 CCTV 영상의 운전자가 모두 A군인 점 등도 반영했다.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고정만 해놓은 탑승하더라도 안전벨트 착용 표시가 켜지는 점, A군이 병원 응급실에서 담당자에게 "차량 뒤에 탑승했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의식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포함됐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이같은 점을 들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에 대해 징역 4년, 단기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친구를 운전자로 지목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무면허로 제한속도를 넘어서 중앙선을 침범해 운전하다 모두 3명이 숨지는 사고를 냈고 상대방 차량에 타고있던 승객 피해자 가족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A군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장애인 일자리사업 발대식

3일 오후 광주 동구 장애인복지관 강당에서 미취업 장애인에게 사회참여의 기회와 중증장애인에게 직업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2022년 장애인 일자리사업 발대식'이 열렸다. (광주 동구 제공)

대체 운송기사들 차량 연료 공급선 절단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노조원 3명 송치

경찰, 강경 노조원 독단적 행동 판단

민주노총 화물연대 광주지역본부 2지부 SPC지회 조합원들이 대체 운송기사들의 차량 연료 공급선을 자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노조 파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장애가 되는 대체 운송을 막기 위한 일부 강경 노조원의 독단적 행동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3일 합평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노동 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간 SPC 파리바게뜨 광주지역 운송 노동자들을 대신해 제빵 제품 배송을 맡은 차량의 연료공급선을 고의로 절단한 혐의(재물손괴)로 민주노총 화물연대 소속 노조원 A씨 등 3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2시께 무안광주고속도로 합평나비휴게소에 세워 둔 화물차 연료

공급선을 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등 3명의 범행이 노조 차원에서 계획된 범행 여부인지를 집중 조사했지만 사전에 계획된 범행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서류를 검찰로 넘겼다. 조합장 B씨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노조 내부에서도 A씨 등이 우발적으로 과거의 강경했던 노조의 투쟁방식을 그대로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파리바게뜨 각 매장에 제빵 원료 등을 배송하는 물류 노동자 중 민주노총 화물연대 광주본부 2지부 에스피씨 지회 소속 조합원 40여명은 지난해 9월 파업에 들어갔다가 48일만에 운수회사와 합의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법무부, 비대면 스마트접견 확대

재판 중인 미결수용자도 가능

법무부는 새해부터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스마트접견' 이용이 수형자 이외에 재판 중인 미결수용자도 가능해진다고 2일 밝혔다.

방문 접견과 달리 스마트접견은 민원인이 교도소나 구치소를 방문하지 않고 집이나 회사 등 원하는 장소에서 PC나 스마트폰 등으로 수용자와 대화를 나눌 수 있다. 법무부는 "수용자와 민원인의 접견 편의성을 높이고 교정시설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사실상 모든 수용자에게 확대 시행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h2>경매교육 [특수전문반]</h2> <p>기초반, 중급반</p>		<h2>상가매매(상무지구)</h2> <p>중심상업지역 6층, 7층 (총분양 140평) 시세 -> 9억 급매가 -> 5억8천 (보 3천, 월 350만, 용 3억5천) (사무실 리모델링함,빠,유층,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p>	<h2>신축원룸매매(신축)</h2> <p>1개동 원룸 (상가)로 노후대비결(공실없음) ● 월수익 750만 ● 년수익 9000만 ● 매가 13억5천 (보2천, 용 6억5) ★ 4개동(월수익 3000만) => 년수익 3억6천 매가 56억(보8천, 용25억)</p>
<p>1) 특수경매전문반 모집(선착순 8명) (유치권 전문, 법지)</p> <p>2) 직업 전문반모집(배우면서 돈버실분 환영) ● 기초반, ● 중급반, ● 특수반 (기초부터 ~ 실전 ~ 특수까지)</p>	<p>광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구 화정동(주택) ▶ 감정가 2억5천 -> 최저가 1억7천 (1/21) 서구 쌍촌동(아파트) ▶ 감정가 1억7천 -> 최저가 1억1천 (1/27) 광산구 수완동(근린상가) ▶ 감정가 95억 -> 최저가 66억 (2/3) 북구 용봉동(다가구원룸) ▶ 감정가 8억3천 -> 최저가 2억9천 (2/3) 광산구 수완동(근린상가) ▶ 감정가 8억1천 -> 최저가 5억6천 (2/3) 서구 화정동(근린주택) ▶ 감정가 3억2천 -> 최저가 2억2천 (2/3) <p>전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양시 성황동(임야) ▶ 감정가 18억 -> 최저가 5억1천 (1/10) 목포시 옥암동(근린시설) ▶ 감정가 25억 -> 최저가 14억 (1/10) 진도군 진도읍(근린시설) ▶ 감정가 32억 -> 최저가 22억 (1/10) 담양군 월산면(임야) ▶ 감정가 9억7천 -> 최저가 3억5천 (1/20) 나주시 빛가람동(근린상가) ▶ 감정가 2억1천 -> 최저가 6천1백 (1/27) 나주시 금천면(주택) ▶ 감정가 4억1천 -> 최저가 2억9천 (2/3) <p>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남 창원시 의창구(근린상가) ▶ 감정가 40억 -> 13억 (1/13) 서울 특별시 영등포구(근린시설) ▶ 감정가 64억 -> 최저가 32억 (1/25) 		
<h1>010-6670-9800</h1>			